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성탄 / 송년 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22장** **다같이**

1.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뵈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2.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3.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4. 여호와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 (후렴) 엎으려 절하세 엎으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게 구주 나셨네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2장 4-6절** **인도자**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설 교 **“크리스마스 챌린지 ; Christmas Challenge”**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2.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챌린지

마태복음 2:4-6

세상에는 아름다운 역설(beautiful paradox)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이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주보다 크신 분이 태아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것,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었을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것.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을 바꾸셨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정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 시대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며, 임신부도 거두어주지 않아 마구간에서 출산해야 하는 각박하고 냉혹한 인심, 시기 어린 헤롯 왕에 의해 많은 갓난아기가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기던 부조리한 시대, 축복받고 태어나야 할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살해를 피해 이집트로 난민 생활을 가야 하는 어둠과 혼란의 시대였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장은 아기 예수이셨다.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챌린지(Christmas Challenge)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으로, 두려움에 사는 인간에게 기쁨을, 세상의 불화에서 평화로 인도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야 한다. ▶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시청률 1위를 기록했었다. 비현실적인 드라마였지만 사람들은 그 인물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싸워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바꾸셨다. 그분은 우선 인류의 최대의 숙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불의, 가난, 질병, 정죄, 소외, 억압, 차별 등을 극복하게 도와주셨다.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런 도전을 해야 한다. 당신은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 가난에도, 질병에도, 정죄에도, 억압에도, 장애에도 “내가 작은 예수다”라고 선언하고 도전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꿈꾸라. 『기프트톨로지 giftology: 선물의 힘』을 쓴 존 롤린은 실패의 순간들을 바탕으로 선물의 개념을 탄생시키고 기프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판촉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 기프트톨로지는 예기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는 멋진 경험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인생의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선물도 전략이다. 선물이 주는 힘은 강력하다. 선물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선물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인생까지 바꾼다.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롤린은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물 이상이다.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선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놀라운 선물, 보잘것없는 포장지이지만, 그 안에 죄 사함, 구원, 소망, 행복, 평안, 사랑, 행복, 능력이 있었다. ▶ 우리도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어 보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에게 한 여교사가 편지를 보내 그를 위로하여, 그로 하여금 우승을 견인하게 한 것처럼 편지를 써보자. 오늘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 한 통은 그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한 번 힘껏 쥐어주고 안아주라.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다. 크리스마스 챌린지!